

“감염병 보도, 어떻게 했고 무엇을 해야하는가? 솔루션저널리즘의 제언*”

이미나(숙명여대)**, 이규원(Solutions Journalism Network)***

1. 들어가며

2020년 1월 중순 국내 코로나 19의 첫 감염자가 보도된 이후 우리사회는 많이 변했고 변화는 진행 중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우리사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감염병이 발생할 때 감염병에 관한 보도는 급증한다. 감염증에 대한 정보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언론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확성과 신속성을 추구하고 추측성과 과장된 기사를 지양하는 보도원칙은 언론인 스스로 만든 ‘감염병 보도 준칙’이다 (감염병보도준칙, 2020년 4월 28일 제정).

감염병 상황에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는 개인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가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심리에 기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다. 정보감염증(infodemic)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 19 감염증 보도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아직 코로나 19 상황이 진행 중이고 관련 보도도 상황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만 일차적으로 관련 보도를 점검하는 일 역시 의미있을 것이다. 뉴스보도의 원칙이라는 기준에서 코로나 19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가 바라는 보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특히, 감염증 보도에 대한 바람직한 뉴스리포팅(아이템 선정 및 기사 작성 포함) 방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솔루션저널리즘을 도입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자 한다. 솔루션저널리즘을 고려함으로써 시청자와 독자들이 감염증 보도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 연구논문으로 준비하고 있는 초고입니다. 인용이 필요하시면 가급적 추후 완성본으로 확인해주시고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부교수, minalee@sookmyung.ac.kr, *** Solutions Journalism Network, Practice Change Associate

다소나마 해소하고 감염증 보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언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코로나 19 관련 보도 현황과 분석

2019년 12월 31일, 중국 당국의 환자 발생 발표 이후, 그리고 2020년 1월 8일, 국내 첫 의심환자 발생이 보도될 때만 해도 코로나 19 사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2월 18일 대구·경북지역의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월 19일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보도됐고 2월 20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뒤이어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수준으로 최고 단계로 상향했으며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대책이 4월 말까지 진행되면서 5월 초에는 생활 방역으로 바뀌는 듯 했으나 산발적인 소규모 지역감염이 발생하면서 6월 초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19 사태에 놓여있다.

1) 언론인들에 의한 보도 분석

코로나 19 감염증 위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1 코로나 19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내외부의 분석과 성찰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 좀더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검토하고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미나와 전문지 등에 보고된 언론인들 스스로의 지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꼽힌다.

○ 전문가 취재원의 중요성

"메르스 때 오보를 줄일 수 있었던 건, 바이러스를 직접 찾아 연구하는 박사와 메르스 환자 주치의 그리고 메르스 방역 일선에서 직접 역학조사와 방역을 담당했던 보건당국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취재를 시작한 이후였다. 이번 코로나 19 감염증

¹ 2003년 발생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는 3월 16일 발생 이후 1백 14일간 계속됐으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판정, 69일째 7월 28일에는 의료계의 사실상 종식 선언이 있었다.

보도에서도 환자 주치의나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자 등 전문가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것이 주효했다².”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층 보도 미흡

“확진자 현황을 보도하는 데에만 그쳤다. 데이터 분석팀이나 전문가와 함께 심층적이고 시각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데에 미흡했다³”.

○ 확산 추이에 대한 보도에 머물렀으며 부정적 보도에 치중됨

“감염증 확산현황을 숫자를 기준으로 보도하고 국가별 순위를 전달하는 등 스포츠 중계식 선정적 보도 경향이 있었다. 통계적 분석의 깊이와 질을 높이지 못했으며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공격적이고 관습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⁴.”

○ 속보경쟁과 오보, 해결 제시에는 미흡

“한 줄짜리 속보 경쟁과 오보 사태도 문제점이다. 무엇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 위주의 보도에 치우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도하는 데 미흡했다⁵”

이외에도 대구, 이태원 등 지역이나 소수자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보도로 비난받았으며 보도량은 많았지만 ‘패닉’, ‘쇼크’, ‘독이 터졌다/무너졌다’ 등 위기감을 조성하는 보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⁶. 코로나 19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감정적 기존의 갈등과 대립, 혐오와 차별을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⁷.

² 조동찬 (2020). [‘코로나 19’ 취재기] ‘코로나 19’에 대한 기사를 쓴다는 것은, <방송기자>, 53, 17-19.

³ 신방실 (2020). [코로나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_보도방향].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송기자>, 54, 31-33

⁴ 구정은 경향신문 국제부 선임기자(2020, 4, 9), 코로나 19와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 '바이럴 뉴스: 미디어와 코로나 판데믹(Viral News: Media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한국언론진흥재단

⁵ 김빛이라 KBS 저널리즘토크쇼 J 기자(2020, 4, 9), 코로나 19와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 '바이럴 뉴스: 미디어와 코로나 판데믹(Viral News: Media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한국언론진흥재단

⁶ 최승영(2020, 4, 8). 70 일간 '코로나' 들어간 기사 6 만여개... 언론이 쌓아올린 '공포의 금자탑' <한국기자협회보>. 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504.

⁷ 정수영 (2020). [코로나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_재난보도] '재난보도'와 '보도재난', 재난이 문제인가 보도가 문제인가?!, <방송기자>, 54, 34-36.

그러나 취재 보도의 측면에서 코로나 19 보도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특히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신천지 집단 감염은 지방 언론사의 부족한 취재인력의 문제를 고스란히 다시 드러냈으며⁸ 감염우려에 따른 정보원 접근과 현장 취재의 어려움은 물론, 기자와 취재팀 스스로의 감염 위험도 취재를 어렵게 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인들은 스스로 감염증 보도 준칙을 제정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보도 원칙을 세우고자 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24일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 19 보도준칙>을 발표했으며 4월 28일에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했다. 이들 보도준칙은 정확한 보도, 정보 제공, 불안/공포감 자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을 보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사실로 밝혀진 정보를 전달'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도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보도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언급이다. '예방법과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염병보도에서 예방과 대처법에 대한 정보를 해야한다는 지적일 것이다. '추측 확대 보도 되지 않도록 보도'하고 '과장된 표현을 자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에 대한 우려이며 감염인에 대한 보도원칙을 밝히고 사생활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언론보도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도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2) 감염증 보도에 대한 연구

감염병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도는 무엇보다 정보제공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다수의 언론인 보도준칙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제일 우위에 두고 있다⁹. 정보는 확산 현황, 질병에 대한 지식, 예방 행동 등, 시민들이 감염병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언론 수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게 된다.

질병과 질병 확산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의 사회경제적 여파, 관련 사건/사고, 대처 방식과 통제 주체에 대해서도 보도된다. 최민수와 정희수(2018)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는데 '사실전달 프레임'(확진/소두증 발생,

⁸ 박재형 (2020). [현장기자 분투기_대구]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방송기자>, 54, 6-9.

⁹ 우리나라의 감염병보도 준칙 이외에도 참고할 만한 감염보도 원칙은 Association of Health Care Journalists의 'Statement of Principles of the Association of Health Care Journalists' (<http://www.healthjournalism.org/secondarypage-details.php?id=56>),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Communicating during an outbreak or public health investigation'(<https://www.cdc.gov/eis/field-epi-manual/chapters/Communicating-Investigation.html>) 등이 있다.

위기/재난), '정보성 프레임'(원인/예방, 증상/진단/검사), '감정적 프레임'(위험성/불안, 안심/안정), '책임 프레임'(비난/불참, 대책마련) 등을 구별해 냈다. 프레임 중에 '사실 전달 프레임'이 전체 보도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으며 감염병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는 스트레이트형 기사를 통해 전달됐으며 시의성 뉴스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⁰.

박건숙(2016)은 2009 년의 신종플루와 2014 년의 메르스에 대한 KBS 9 시 뉴스를 분석하고 보도 프레임을 밝혀냈다. '확산 통제 프레임', '재난 상황 프레임', '경제 위기 프레임' 등이 도출됐는데 확산 통제 프레임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 상황 프레임은 전염병의 위험이 강조되는 내용으로, 경제 위기 프레임은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박건숙은 질병에 대한 보도이지만 감염병은 통제와 확산에 초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비상상황', '불안감'과 같은 위기나 공포 반응의 연관어들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¹¹.

감염병 관련 보도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장되고 선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코로나 19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되는데 유현재와 연구팀은 1 월 20 일부터 2 월 10 일까지 네이버에서 '신종 코로나'로 검색한 총 184,266 건의 기사를 토대로 보도 유형을 5 가지로 분석했다¹². 유형 1 은 '정쟁, 혹은 프레임'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유령도시'로 표현하고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는 유형이었다. 유형 2 는 'TMI 혹은, 우선 순위' 로 불필요한 내용이나 보도가치가 낮은 뉴스 유형이 관찰됐다. 가령, 오소리, 코알라 등의 메뉴가 중국 화난시장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 당시 봉쇄지역이었던 우한을 탈출한 취재 기자의 칼럼 등이다. 유형 3 은 '어부징/어그로 혹은, 클릭 만능' 유형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 음모론, 사실여부가 불확실한 기사 등이 해당된다. 거리에 버려진 오염된 마스크가 감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 코로나 19 가 중국의 신종 생물학 무기에서 비롯됐다는 음모론을 다룬 기사 등이 사례이다. 유형 4 는 '정보의 전달자 혹은 귀차니즘'으로 부정확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한 보도나 오보가 이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유형 5 는 '싸움 구경 혹은 chasing journalism' 으로 격리 시설에 묶고 있는 격리된 교민의 생활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는 보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이귀옥(2015)은 뉴스가 생산되는 과정과 관행에서 찾고 있다. 이귀옥은 제한된 시간 내에 작성 및 보도되는 뉴스 생산의 조건에서 단순한 사실 전달식 보도가 주를 이룰 수 밖에 없으며 독자와 시청자에게

¹⁰ 최민음, 정희수 (2018).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609-619.

¹¹ 박건숙 (2016). 전염병 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어 의미학>, 52, 1-29.

¹² 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국립중앙의료원(2020, 2, 21),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과 한국사회의 위기 소통>.

관심을 끄는 뉴스거리를 찾아야 하는 속성 때문에 극적인 사례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언론사간 경쟁은 사실 확인이나 전문가와의 교차 검증보다는 속보를 우선시하게 되며 심층적인 보도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밝혔다¹³.

3) 코로나 19 보도의 이용자 평가와 정보 수요

앞서 살펴본 코로나 19 관련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평가와 연구자들의 분석은 뉴스를 제작하는 생산의 측면에서 감염증 보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보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론수용자의 관점 역시 필요하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미디어 보도는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보도의 효과는 수용자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언론수용자의 감염증 뉴스 이용과 평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 19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다.

(1) 언론 수용자의 코로나 19 관련 보도의 정보 수요

○ 코로나 19 관련 매체 이용률과 이용 매체

KBS 의 <코로나 19 관련 정보수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 일 평균 8.2 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월 말 2 월 27 일부터 3 월 1 일 기준). 코로나 19 관련 정보의 취득 경로로는 TV 방송이 52.4%, 포털사이트가 32.2%를 차지해 코로나 19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TV 방송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로 하는 정보는 현 거주지의 감염현황 정보와 방역현황, 초기 증상과 이후 증상발현에 대한 자가 진단 정보 등이었다¹⁴.

TV 를 통해 코로나 19 보도를 가장 많이 접한다는 뉴스 이용 형태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찰된다. 로이터 연구소는 2020 년 3 월 31 일부터 4 월 7 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6 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¹⁵.

¹³ 이귀욱 (2015). 언론, 정보전달자 넘어 감시견 역할 다해야. 관훈저널(136), 29-38.

¹⁴ KBS, '코로나 19' 관련 현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요 조사결과 발표, (2020, 3, 2), http://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blog&contents_id=70000000334508

¹⁵ '인포데믹 탐색하기: 6 개국 국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뉴스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평가했는가(Navigating the 'Infodemic': How People in Six Countries Access and Rate News and Information about Coronavirus),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infodemic-how-people-six-countries-access-and-rate-news-and-information-about-coronavirus>; 박아란, 이소은(2020, 4).

코로나 19 관련 뉴스 이용률은 언론사(77%),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국내 보건기구(37%), 정부(31%), 과학자/의사/건강전문가(21%), 지인들(19%), WHO와 같은 국제 보건기구(16%), 모르는 사람들(7%), 정치인(6%) 등으로 나타났다. 평소 뉴스 이용률이 온라인(85%), TV(65%), 소셜미디어(51%), 신문(17%), 라디오(14%) 순서임을 고려하면 코로나 19 상황에서 언론사 이용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보건기구와 같은 공신력 있는 소스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아지며 평소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곧, 코로나 19 관련 매체 이용의 특성은 정보 욕구가 높으며 특히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정보원에 직접 접근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볼 수 있다.

○ 코로나 19 관련 뉴스 출처에 대한 신뢰와 보도에 대한 평가
로이터 연구소의 설문 분석 결과, 뉴스 출처에 대한 신뢰 정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됐다.

- 과학자/의사/건강전문가: 신뢰함(81%) vs 신뢰하지 않음(6%)
- 국내 보건기구: 신뢰함(78%) vs 신뢰하지 않음(8%)
- 언론사: 신뢰함(67%) vs 신뢰하지 않음(13%)
- 정부: 신뢰함(66%) vs 신뢰하지 않음(18%)
- 검색엔진: 신뢰함(61%) vs 신뢰하지 않음(11%)
- 온라인동영상플랫폼: 신뢰함(44%) vs 신뢰하지 않음(23%)
- 소셜미디어: 신뢰함(40%) vs 신뢰하지 않음(27%)
- 메신저 서비스: 신뢰함(41%) vs 신뢰하지 않음(24%)

언론사, 정부 등 공적 채널의 정보를 신뢰하며 대신에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서비스 등 개인간 채널의 정보는 신뢰도가 공적 채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미디어 보도와 관련해 “뉴스 미디어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질문에 65%가 동의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는 질문에는 57%가 동의했다. 또한 “뉴스 미디어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과장했다”는 질문에는 23%가 동의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언론수용자들이 대체로 미디어 보도가 코로나 19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코로나 19 관련 보도의 효과 메커니즘

코로나 19 관련 보도에 대한 위의 내용은 6 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로 우리나라 언론수용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앞선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먼저 코로나 19 상황에서 감염 및 감염 확산의 두려움 정도가 높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확진자가 될까 두렵다”라는 문장에 64%가 동의했으며(‘매우 그렇다’ 18%, ‘다소 그렇다’ 46%), “주위 사람들에 피해를 끼칠까 봐 두렵다”라는 문장에는 86%가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48%, ‘다소 그렇다’ 38%)¹⁶. 또한 코로나 19 뉴스로 경험한 감정은 불안(60.4%), 공포(16.7%), 충격(10.9%), 분노(6.7%), 혐오(3.7%), 슬픔(1.6%)의 순서로 조사됐다¹⁷.

우리나라의 분석결과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다. ‘시사인’, KBS, 한국리서치의 합동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19 이후 신뢰도 변화를 분석했는데 공적 제도의 신뢰는 상승한 반면 언론의 신뢰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코로나 19 이전과 대비해서 더 신뢰하게 되었는지 불신하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에서 ‘불신하게 되었다’는 응답을 빼서 ‘신뢰변화지수’를 계산했다. 분석결과 질병관리본부, 의료인·의료기관, 청와대, 정부가 각각 +75, +72, +29, +27 의 신뢰도 상승을 보여준 것에 비해 언론은 -45 로 나타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언론신뢰는 급격히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분석결과는 코로나 19 관련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코로나 19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자체 분석과 연구를 소개했지만 언론수용자가 평가하는 우리나라 언론보도의 신뢰 정도는 좀더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언론의 신뢰도 수준 하락의 원인은 첫째 코로나 19 보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명순(2020, 2, 21)의 발표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 코로나 19 인식과 정치성향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됐다. 응답자의 정치성향을 진보, 중도, 보수로 구분하고 정치성향에 따른 감염심각성과 감염가능성의 분석했을 때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중도나 보수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감염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게 인식하며 감염심각성을 보수성향의 응답자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¹⁶ 천관울(2020, 6, 2). 코로나 19 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의외의 응답편. <시사인>.

¹⁷ 유명순(2020, 2, 21). 반복인가 극복인가: 코로나 19 국민위험인식 조사결과와 위기 관리에의 함의,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과 한국사회의 위기 소통(헬스커뮤니케이션 학회, 국립중앙의료원)>. 2월 첫째주 조사 실시.

나타났다. 유명순은 메르스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해 메르스관련 보도와 코로나 19 관련 보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코로나 19 보도에서 언론은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한 보도에서 편향적 보도를 했다는 스스로의 진단이 있었던 만큼, 언론의 편향적 보도와 언론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맞물리면서 코로나 19 의 감염위험성과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많았고 보수적인 성향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접하면서 코로나 19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한 것에 반해 여당성향의 지지층에서는 언론의 정부 비판성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언론보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언론이 전달하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덜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적대적 미디어 효과 (hostile media effect)의 작용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개인이 인식하는 미디어 평가가 코로나 19 상황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를 검증할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언론의 신뢰도 하락과 관련된 두번째 요인은 언론의 비판적, 부정적 보도태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유명숙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정보탐색과 위험인식과의 관련이다. 신종코로나 정보를 뉴스에서 찾아본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본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감염되었을 때 건강영향이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 정보를 많이 찾아보았다고 응답하였을수록 위험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비슷한 연구결과가 정익재(2019)의 연구에서도 관찰됐는데 신문기사 노출이 많아지면 위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의 수와 위험인식, 지식, 두려움 수준이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문기사 수는 특히 위험수준인식과 매우 높은 상관($r=.730$)를 갖고 있었다¹⁸. 개인의 위험인지는 주관적으로 이뤄지는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위험 요소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사회구성원에게 많이 노출되면서 전달된 사건사고의 위험 수준이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보도량이라기는 보다는 보도의 유형이라고 생각된다. 언론은 갈등요소를 부각시키면서 부적 편향(Negative Bias)을 야기하는데 부적 편향은 사회심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폭력이나 재난에 대한 부적 편향의 미디어 뉴스 프레임은 무력감을 높이고 도움 행동과 관용 수준을 낮추게 된다¹⁹.

¹⁸ 정익재 (2019). 사회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위험인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대중매체의 영향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9(3), 1-20

¹⁹ 이미나, 김선호, 하주용(2019). 분노산업을 넘어서: 국민 갈등 해소를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의 실천. SBS 문화재단.

코로나 19 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부적 편향에 근거한 언론의 비판적 부정적 보도는 개인의 위험인식을 낮추고 부정적 정서를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결국 감염병 보도 혹은 더 나아가 언론의 보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동안 언론은 다양한 점에 주목하고 새로운 방식의 보도를 실천해 왔다. Constructive Journalism, Civic Journalism, Investigative journalism 등은 기존의 부적 편향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는 언론의 시도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소개하고 코로나 19 감염병 보도의 대안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3. 솔루션저널리즘과 코로나 19 보도

1) 솔루션저널리즘

솔루션저널리즘은 비단 감염병이나 재난상황을 다루는 보도에 있어서 뿐 아니라, 언론보도 일반에 넓게 적용되는 접근법이다. 솔루션저널리즘의 초기 개념과 활용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1990 년 대부터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이 같은 보도 방식과 그에 관한 제반 이해가 언론과 학계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3 년 미국에서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 (Solutions Journalism Network, SJN)가 설립되면서부터다²⁰. SJN 은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170 여 개 언론사, 미국 내 16 개 언론학과, 전 세계 7,000 여 명 이상의 기자들과 협력해 솔루션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뉴스룸 내 보도기획 과정에서부터 현장취재까지 솔루션저널리즘 수행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유무형의 지원을 펼쳐왔다.

SJN 은 솔루션저널리즘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증거와 효과에 기반해 분석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짚고 가야할 점 하나는 솔루션저널리즘을 실천, 지지하는 단체와 학자, 언론인들이 '모든 보도가 솔루션저널리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어떠한 사회 문제가 왜 문제이고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인지를 일반 독자와 대중이 전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파헤치고 알리는 기존의 '문제중심'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미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론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만 지속적으로

²⁰ Mcintyre, K. (2019). Solutions Journalism: The Effects of Including Solution Information in News Stories About Social Problems. *Journalism Practice*, 13(8), 1029–1033. doi: 10.1080/17512786.2019.1640632

재생산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아가 여러 공동체들이 해당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하자는 것이다.

또, 솔루션저널리즘이 한국 언론과 학계에 소개되는 종전 과정에서 '언론사 또는 기자가 주어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 또한 SJN이 솔루션저널리즘을 이해하는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SJN에서 지향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솔루션저널리즘은 문제 해결에 언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그 효과 여부 및 한계와 함께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도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솔루션저널리즘이 BBC News나 가디언, 뉴욕타임스 같은 세계적 언론사에서부터 리치랜드 소스, 스타 트리뷴과 같은 전통적 지역 강호 언론, Are We Europe, The GroundTruth Project 같은 온라인, 비영리 기반의 실험적 언론단체 모두를 아울러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첫째, 솔루션저널리즘이 기존의 '문제중심' 저널리즘과 합쳐지게 되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저널리즘의 존재론적 역할이 한 층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²¹. 솔루션저널리즘의 핵심 가정 중 하나는 어떤 사회문제가 만고불변의 계제가 아니라 해당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담당 집단, 책임자의 의무방기에서 발생한다는 이해에 있다. 다만 '문제중심' 저널리즘이 이를 폭로, 반복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솔루션저널리즘은 동일한 문제가 올바른 대응을 통해 해결된 구체적 사례와 그 증거를 독자에게 제시해줌으로써 문제에 책임이 있는 집단에게 무언의 압력을 줄 수 있는 준거점을 마련해준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솔루션저널리즘 접근을 통해 소위 이 같은 '권력압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클리블랜드시 '클리블랜드 플레인 딜러(CPD)'지의 납 성분 보도와 그 여파를 들 수 있다. 클리블랜드시는 1990년 후반부터 약 이십여 년 이상에 걸쳐 주거지역의 납 성분 검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매년 1,500-2,000여 명의 영유아들이 납중독에 시달렸고, 특히 도시 중심부의 유색인종, 저소득층 거주지에서 그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의 대표적 언론인 CPD 역시 해당 문제를 끊임없이 보도, 지적해왔지만 특정 시점 이후부터 클리블랜드시에서 납중독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운 관심을 끌지 못하는 뻘한 주제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독자들의 관심도 줄어든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 점점 요원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CPD가 새롭게 취한 접근이 바로 솔루션저널리즘이다. CPD는 문제만을 지적하는

²¹ Walth, B., Dahmen, N. S., & Thier, K. (2019). A new reporting approach for journalistic impact: Bringing together investigative reporting and solutions journalism. *Newspaper Research Journal*, 40(2), 177-189. doi: 10.1177/0739532919834989

기존 보도에서 나아가 클리블랜드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미국 내 다른 지역²²에서는 주거지의 납 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고 타 지역에서 나타난 노력들과 클리블랜드시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시 조례에서부터 납중독 아동 진료 절차, 규정 위반 사례 처벌 기준 등 구체적인 사례에서 비교해 독자들에게 제시했다.

이 보도 이후 클리블랜드시 보건 당국의 책임자급 담당자 4 명 중 3 명이 사퇴했고 시의 납 성분 검사 담당 직원은 3 명에서 7 명으로 증원되었다. 또, 보도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참조해 시 정부는 납 성분 검사 절차를 기존 후속적 접근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하이오주 정부 역시 이에 반응, 클리블랜드시에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납 성분이 검출된 주택 명단을 직접 게재했다.

솔루션저널리즘이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는 솔루션저널리즘 보도에 대한 독자의 긍정적 반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 언론 전반에 지속적으로 제기 돼 온 독자 신뢰도 감소 문제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에 대한 과장과 자극적 보도를 반복하는 기존 보도 양상은 언론에 대한 독자의 불신을 재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왔기 때문이다²³. 솔루션저널리즘은 이 같은 보도 습관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해 사회의 부정적 단면과 더불어 주어진 문제를 개선코자 하는 각종 공동체들의 대응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보다 균형있게 보도, 언론보도에 대한 독자의 신뢰와 참여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2014 년 미국의 독자 755 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주목해볼만 한데, 독자들에게 동일한 주제에 관해 쓰인 문제위주 보도와 솔루션저널리즘 두 기사가 주어졌을 때, 문제위주 보도 대비 솔루션저널리즘 보도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되었다”, “같은 신문에서 나온 다른 기사들을 더 읽고싶어졌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싶어졌다”, “기사를 공유하고 싶어졌다”고 답한 독자들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 독자 834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주제에 관해 동일한 분량과 독해 난이도, 동일한 표제와 사진이 쓰인 기존 보도와 솔루션저널리즘 보도가 주어졌을 때, 기존 보도에 비해

²² 뉴욕주의 로체스터 시,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미시간주 그랜 라피즈 시, 워싱턴 DC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²³ 강준만. (2019).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가능한가?: 지역에서의 '넛지-솔루션 저널리즘'을 위한 제언. <사회과학연구>, 58(1), 247-279. doi : 10.22418/JSS.2019.6.58.1.247

²⁴ Curry, A. L., & Hammonds, K. H. (2014). *The power of solutions journalism*. Engaging News Project. Retrieved from https://mediaengagement.org/wp-content/uploads/2014/06/ENP_SJN-report.pdf

솔루션저널리즘 기사 페이지에 독자들이 머무른 시간이 10-2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2) 감염증 보도에 대한 솔루션저널리즘의 제언

이 같은 솔루션저널리즘 보도방식은 코로나 19 를 비롯한 감염병 사태에 부쳐서도 온전히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감염병 발발 초기 이후 공중이 감염병 사태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게 된 경우, 언론이 국내외 신규확진자 수를 속보성으로 보도하고 자극적인 감염병 사망소식 등을 전달하는 것이 더 이상 독자와 사회에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SJN 역시 이러한 접근에 기초해 2020년 3월 초를 시작으로 상당수 연구 및 교육 등을 코로나 19 관련 보도 역량 강화에 최적화해 진행하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현재 총 25건 이상²⁶의 코로나 19 보도 가이드라인 또는 참고자료가 총 5개 국어²⁷로 발간되었고, 12회 이상의 코로나 19 보도교육이 진행되었다. SJN 이 제시하는 코로나 19 및 감염병에 대한 솔루션저널리즘 접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진 문제에 대해 전반적 배경을 제공한 뒤,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조명한다. 이 때,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보다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주목, 특정 세력이나 인물에 대한 홍보성 보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당면한 문제가 코로나 19 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친 대규모 이슈인 경우, 이를 한 번에 해결한 사례는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보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가령 '어떤 나라가 코로나 19 사태에 가장 잘 대처했을까?'와 같이 추상적인 규모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되면 보도의 명확성과 근거에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도의 관점을 '대구에서는 어떻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까?', '홍콩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스위스 정부는 코로나 19 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고 한국과는 어떻게 다를까?'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각각의 효과를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옮겨오는 것이 주요한 전략 중 하나다.

둘째,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더불어 그러한 대응이 실제로 효과적이었는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질적, 양적 취재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앞서 SJN 이 솔루션저널리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증거와 효과에 기반해 분석적으로

²⁵ Curry, A., Stroud, N. J., & McGregor, S. (2016). *Solutions journalism and news engagement*. Engaging News Project. Retrieved from <https://engagingnewsproject.org/wp-content/uploads/2016/03/ENP-Solutions-Journalism-News-Engagement.pdf>

²⁶ <https://thewholestory.solutionsjournalism.org/tagged/coronavirus> 참조.

²⁷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보도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분석적 보도"가 부각되는 지점은 문제 대응에 대한 효과성을 보도하는 데 있어 특정 집단이 제시하는 자료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다. 가령 '대구에서는 어떻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까?'의 관점에 입각해 보도를 한다고 했을 때, 대구시의 보도자료나 정부 보건당국의 발표를 되받아쓰기 하는 것을 "분석적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그 같은 자료들이 신뢰할만한지를 교차검증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집단, 가령 이 경우, 병상 대기열에 머물러있던 환자들, 일선에서 근무하던 의료진들,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해당 대응책이 효과적이었다고 느끼는지 묻는 과정을 취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감염병 보도 특성상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특정 대응의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SJN 의 공동설립자 티나 로젠버그와 '필라델피아 시티즌'지의 선임국장 록산 파텔 세플라비는 다음 다섯 가지 조언을 한다²⁸.

<코로나 19 에 대한 원거리 보도 전략>

1. 현장 취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마치 현장에 직접 취재를 나가는 것처럼 가정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관련자료들을 수집해 취재를 구성한다.
2. 현장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줄 수 있는 이들을 찾아 전화, 영상통화 등을 통해 현장상황을 생생히 전달해줄 것을 부탁한다.
3. 전화 등으로 원격 취재를 할 때, 준비된 인터뷰 질문지만을 채우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취재에 응하면서 취재원으로부터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한다.
4. 특정 대응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같은 대응으로 실제 영향을 입은 사람들, 혹은 비판자들의 이야기를 취재에 포함시킨다.
5. 한 장소 또는 사례에서 효과를 본 대응책이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질문해본다.

셋째, 특정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효과가 교차검증 된 이후에는 그 같은 사례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공동체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한다. 현장에서 언론보도를 하는 이라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²⁸ <https://thewholestory.solutionsjournalism.org/how-to-report-solutions-journalism-from-your-house-five-tips-from-two-veteran-journalists-72597d4e3980> 참조.

'교훈'은 해당 보도의 주 독자 구성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22일 솔루션저널리즘 시각에서 "How South Korea Solved Its Acute Hospital-Bed Shortage"²⁹ 기사를 내보낸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 미국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대구의 병상 부족 해결 과정을 보도했기 때문에, 미국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의 사례가 어디까지 미국에 적용가능한지, 어떤 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기본 구조에 차이가 있는지를 기사 곳곳에서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대응이 지닌 근본적, 잠재적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세상의 어떤 "해결책"도 단 한 번에 모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한계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혹여 특정한 또는 집단이 어떤 해결책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더라도, 그 한계를 밝혀내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인의 기본 역할과 맞닿아 있다. 가령 홍콩에서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완화했는지 보도할 때, 그 같은 대응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이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집행되었다거나, 나아가서는 그 같은 대응책에 회의적인 학자나 의료진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보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정 대응에 비판적인 이들의 의견으로부터 대응책의 한계를 찾아나서는 것은 솔루션저널리즘 보도의 '한계' 요소를 명확히 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SJN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솔루션저널리즘적 시각에서 보도하기 위한 24 가지 질문지를 제시했다³⁰. 그 중 한국의 맥락에 유의미한 질문 몇을 소개한다.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솔루션저널리즘 보도를 위한 질문지>

- 노인들을 코로나 19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나?
- 노숙자들에게 검진 및 보호책이 제대로 제공된 경우로는 무엇이 있나?
- 교도소 및 구치소 내 감염방지를 위해 어떤 대응이 효과적이었나?
- 장애인들에게 코로나 19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떤 접근이 유효했나?
- 육아와 생업을 병행하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효과를 보았나?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단절 문제를 완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효과가 있었나?

²⁹ Yoon, D. (2020, March 22). How South Korea Solved Its Acute Hospital-Bed Shortage. *The Wall Street Journal*. Retrieved from <https://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solved-its-acute-hospital-bed-shortage-11584874801>

³⁰ <https://thewholestory.solutionsjournalism.org/24-questions-to-frame-your-solutions-reporting-on-covid19-fe363525ff7> 참조.

- 아이들이 코로나 19 로 인한 일상 변화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겪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
- 영세업체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 대응에는 무엇이 있었나?
- 일선 의료진들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하는 데 어떤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나?
- 코로나 19 와 관한 가짜뉴스 및 거짓정보를 판별해내는 데 어떤 노력들이 효과를 거두었나?
-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지원책들이 마련되었나?
-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미 전세계 200 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이 같은 솔루션저널리즘의 원칙을 일부 또는 전면 적용한 코로나 19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SJN 데이터베이스³¹에서 이 같은 보도들을 보도 유형, 지역, 언론사, 기자, 보도 길이, 분야 등에 따라 찾아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2020 년 5 월 28 일 현재 총 639 건의 코로나 19 관련 솔루션저널리즘 보도가 수록되어있다.

3) 솔루션저널리즘네트워크의 코로나 19 워크숍

앞서 언급한 이론과 접근법을 적용, SJN 은 UNDRR(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과 협력해 2020 년 5 월 20 일부터 2020 년 6 월 17 일까지 총 8 회에 걸쳐 세계 4 개 지역 (방콕, 파나마, 카이로, 나이로비) 기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및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솔루션저널리즘 접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방콕 및 나이로비 워크숍은 영어로, 파나마 워크숍은 스페인어, 카이로 워크숍은 아랍어로 진행되며, 해당 워크숍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전세계 공동체들이 겪는 불안과 불안정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 를 비롯, 재난상황 전반에 다양한 층위의 집단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것이다. 본 발제에서는 SJN 의 사라 구스타부스와 이규원 담당자에 의해 진행된 방콕 지역 워크숍을 구체적 사례로 소개한다.

워크숍은 총 2 회로 구성, 사전등록한 기자들에 한해 방콕 현지 시간 5 월 20 일 오전 10 시 (1 회차), 6 월 10 일 오전 10 시 (2 회차 / 예정),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 (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1 회차 세션은 태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위스, 대만,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국가에서 총 19 명이 참석했으며 약 2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후반부 약 30 여 분 간은 태국 소재 재난보도 전문 기자 다린 콤네트렛을

³¹ <https://storytracker.solutionsjournalism.org/> 참조.

초청, 참석한 기자들과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했다. 이에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솔루션저널리즘 시각을 적용해 보도를 하고자 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2 회차 세션에서는 각자 보도 아이디어 및 세부 안건들을 참석자 간 상호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 차 세션에서 실제 솔루션저널리즘 보도 사례 두 건을 토대로 두 기사가 어떻게 문제에 대한 대응, 효과, 교훈, 한계를 독자에게 분석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두 편의 기사를 완벽한 예시로서 조명한다기보다는 장단점이 공존하는 사례로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취했다. 가령 ABC 뉴스의 “How has Vietnam, a developing nation in South-East Asia, done so well to combat coronavirus?” 기사 같은 경우, 베트남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같은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양적, 질적 증거와 함께 상세히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대응에 어떤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자칫 단순한 홍보성 기사로 비취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한 월스트리트저널의 “How South Korea Solved Its Acute Hospital-Bed Shortage” 기사는 매우 구체적인 차원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문제 해결 과정을 시간흐름에 따라 분석적으로 추적, 설명한다는 점에서 국내 타 지역 뿐 아니라 해외의 독자 및 대중들에게도 의미있는 교훈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인 트리뷴’지는 해당 보도 및 SJN 워크숍에서 얻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동일한 준거점에서 나이지리아의 병상 문제를 조명, 정책 담당자들을 압박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3 2}.

코로나 19 등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에서 기자들이 솔루션저널리즘 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로는 앞선 장에서 언급한 솔루션저널리즘 질문지를 비롯, 솔루션저널리즘 데이터 분석 세미나^{3 3} ,, 솔루션저널리즘 데이터베이스^{3 4} 등이 있다.

^{3 2} Ogunyemi, I. (2020, May 15). COVID-19: Will South Korea’s Model Help Save Nigeria’s Hospital Bed Shortage? *Nigerian Tribune*. Retrieved from <https://tribuneonline.com/covid-19-will-south-koreas-model-help-save-nigerias-hospital-bed-shortage/>

^{3 3} <https://www.youtube.com/watch?v=5B92ZFY5mgY>, 녹화분.

^{3 4} <https://storytracker.solutionsjournalism.org/>

4. 결론

코로나 19 감염증은 사회재난이다. 최고 위기 수준인 심각단계에 우리는 놓여 있다. 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보도를 해야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솔루션저널리즘을 소개하며 이에 기초해 코로나 19 사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도해야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솔루션 저널리즘 방식이 실제로 언론수용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며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솔루션저널리즘에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는 솔루션저널리즘이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 위기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 방식은 언론수용자가 언론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으며 언론인 스스로 언론의 역할에 대해 회의하게 한다. 해결 중심의 보도를 통해 언론수용자를 관여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통해 개인의 효능감을 제고시키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실천은 시도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언론인 스스로의 역할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언론 보도의 긍정적 역할 수행은 우리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솔루션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다. 언론인 뿐 아니라 언론사의 지원이 필요하며 상업 언론을 설득하는 일이 어렵다면 공영방송에서 먼저 실천해 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 관련 보도에서 시청자의 권익과 방송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시도로 새로운 저널리즘을 활용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